



즉시 배포용: 2020 년 4 월 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1 회계연도 예산 서명

Cuomo 주지사: "우리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쳐 있지만, 다른 일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법안의 통과가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아동 베이핑, 대리모 문제 등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난 밤 이러한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FY 2021 Enacted Budget)에 서명했습니다. 예산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계속하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하고, 대리모 합법화를 포함한 다른 진보적인 우선 과제를 추진합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의 주요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정 예산에 대한 주지사의 연설 동영상은 [여기](#) 유튜브(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V 화질(h.264, mp4) 포맷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 예산에 대한 주지사 연설 음성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다음은 주지사 연설 초록입니다:

주정부 예산이 지난 밤 새벽 3 시에 통과되었습니다. 주정부 예산은 특별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많은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인 전국 최초의 국내 테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보석 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베이핑 증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펜타닐을 금지했고, 반복적인 지하철 성범죄자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캠페인 재정 지원 개혁안, 유급 병가, 중산층 세금 감면, 매우 적극적인 공항 건설 프로그램 및 이용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쳐 있지만, 다른 일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법안의 통과가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아동 베이핑, 대리모 문제 등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난 밤 이러한 안전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주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이번 예산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익을 예상할 수 없을 때 예산을 계획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향후의 수익이나 손실에 따라 조정될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의 가정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부의 향후 수익, 경제 회복 속도, 비용 규모를 살펴본 뒤,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통과될 연방 원조 법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몇 가지 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든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정부가 배제당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주정부가 태세를 바꾸어 주정부 자원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교육, 의료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저는 오늘 Pelosi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다음 법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정부의 필요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는 지방정부의 필요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는 뉴욕이 과거 법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저의 입장을 이해하며 뉴욕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장과 수차례 함께 협력한 바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신뢰하며, 능력이 절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장 및 기타 의원들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연방 지원 액수에 따라, 향후 예산이 조정될 것입니다.

2021 발전 추진(MAKING PROGRESS HAPPEN) 제정 예산 주요 내용

뉴욕 주민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실시: 뉴욕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뉴욕주의 모든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뉴욕 주민인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제정합니다. 직원이 5명에서 99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연간 5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은 연간 최소 7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매년 5일간의 무급 병가를 직원들에게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도 이러한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뉴욕주의 대리모 합법화: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성소수자(LGBTQ) 커플과 난임 커플을 돕기 위해 뉴욕주에서 대리모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부모와 대리모를 위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대리모 계약 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당사자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리모 권리 장전(Surrogates' Bill of Rights)을 만들어 대리모가 임신 중단 또는 지속 여부를 포함한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의뢰한 부모가 전액을 부담하여 대리모가 종합 건강 보험의 혜택을 수령하고

자신이 선택한 독립적인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예산에 포함된 법안은 개인 중 한 명이 비생물학적 부모인 경우, "두 번째 부모 입양"으로 알려진 과정을 간소화하여 부모임을 확립할 수 있는 간결한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뉴욕 혐오 범죄 반테러법" 통과: 2021 회계연도 예산은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이 최고형인 A-1 급 중범죄로 "혐오 동기의 국매 테러"를 새롭게 제정합니다.

주정부 경계 바깥에 있는 총기 허점 봉쇄: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는 뉴욕에서 저지른 경우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를 뉴욕 외에서 저지른 개인이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뉴욕 라이선스 제도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총기 구매가 금지된 개인이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제정 예산에는 또한 주 내의 모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의 범죄 총기 추적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ATF)의 이트레이스(eTrace) 시스템을 통해 회수된 범죄 총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정 예산에는 뉴욕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한 개인에 대한 보고서를 다른 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을 개정하는 법안이 포함됩니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노숙자를 위한 주택 및 서비스: 뉴욕의 노숙자 커뮤니티와 정신질환자들은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는 이러한 취약한 사람들에게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및 추가 지원책이 포함됩니다.

포괄적인 담배 통제 정책 제정 Cuomo 주지사는 유해한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을 막음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정 예산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사전 승인의 일환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가향 특성이 있는 전자 담배 또는 베이핑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약국에서 전자 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전자 액체 제품의 배송을 뉴욕주 면허를 가진 베이핑 소매업체로 제한하고, 학교 근처에 담배 및 베이핑 제품 전시를 제한하며, 베이핑 제품 제조업자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커미셔너 및 일반 대중에게 의도에 관계 없이 추가된 성분, 부산물,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캐리어 오일 사용을 금지하며, 쿠폰 및 제조업자 할인, 제품 진열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 불법 판매 시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처방약: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처방약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 부분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인슐린 보험 가입자 부담금을 매월 100 달러로 제한해 당뇨병 환자가 복용량을 제한하거나 복약을 건너뛰고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게 만드는 인슐린 비용 상승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정 예산은 캐나다 의약품 수입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이익을 연구하고 검토를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계획을 제출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수립할 것입니다.

핑크 택스(Pink Tax) 금지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요청에 따라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 서비스의 가격 목록을 제공하고 주 법에 따라 성별 기반 가격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대자연 복원 채권법 신설 승인: 예산은 뉴욕이 일자리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의 극심한 영향에 적응하고 배출량 감축을 보장하여 뉴욕주의 모든 곳에서 필수적인 환경 복원 및 기후 변화 완화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는 채권법(Bond Act) 신설을 승인합니다. 대자연 복원 이니셔티브(Restore Mother Natur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채권법은 홍수 위험 감소, 탄력적인 인프라 투자, 담수 및 조수 습지 복원, 열린 공간 보존, 산림 지역 보존, 농업 및 폭풍 토사로 인한 오염 감소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건물을 포함한 기후 변화 대책 프로젝트에 최대 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취약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의 35 퍼센트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사는 올해 말 주정부의 재정과 경제 전망을 평가하고 채권법 추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수압 균열법 영구 금지: 제정 예산은 시추 완공 및 재완공의 수단으로 고량 수압 균열법 사용하는 드릴링, 디프닝, 플러그 백, 변환 등을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승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성문화합니다. 또한 환경보존부가 완공 방법의 영향력 분석을 시행하기 전까지 겔형 프로판 수압 균열법 사용을 중단합니다. 이것은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의 환경이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중산층 감세 정책 지속: 올해 제정 예산은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2020 년은 2016 년 중산층 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3 년차로, 소득 계층이 43,000 달러에서 161,55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85 퍼센트에서 6.09 퍼센트로, 소득 계층이 161,550 달러에서 323,200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41 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감세로 올해 470 만 명의 뉴욕 주민이 18 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소득 계층이 27,900 달러에서 161,550 달러인 납세자는 세율이 5.5 퍼센트까지, 161,550 달러에서 323,200 인 납세자의 세율은 6 퍼센트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감세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되면 중산층 납세자들은 최대 20 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2025 년까지 600 만 명의 신청자의 절감액이 연간 42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비상 대응 역량 확대 및 현대화: 뉴욕 카운티의 60 퍼센트 이상이 지난 10년간 두 번이나 침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늘어나고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정부 운영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우리의 용감한 주민들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확보하여 응급 대응 능력을 늘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 자금으로 1,200 만 달러 지원을 유지합니다.

퇴역 군인 및 경찰관 자살 문제 해결: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100 만 달러를 투자해 퇴역 군인, 경찰관 및 응급요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예산은 또한 퇴역 군인, 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및 응급 요원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전략을 확대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는 정신 질환의 오명을 줄이기 위한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의 캠페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뉴욕주는 연례 자살 방지 컨퍼런스(Suicide Prevention Conference)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하여 이러한 특수 인력을 위한 자살 방지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주정부 인장에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문구 추가: 우리의 국부들은 단결의 개념이 미국의 미래의 열쇠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782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첫 번째 인장에, 그들은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세 가지 간단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우리 나라는 미국의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맞이하여 2021 회계연도 제정 예산의 일환으로 뉴욕주 인장에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뉴욕주는 단결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추악한 시대에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